

YLP 오리엔테이션...북한 등 19 청소년 한자리에

<유스리더십프로그램>

오늘 EPICS 포럼 환경·스포츠 등 멘토들과 소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 Youth Leadership Program)이 22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23일엔 EPICS(에픽스)포럼에 참여, 세계 유명 환경과 문화, 스포츠분야 멘토들과 소통하게 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이하 U대회조직위)와 UNSPO

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은 이날 오전 9시30분 호남대 광산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북한의 4명을 포함해 중국과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부탄 등 19개국 33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YLP개막식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윌프리드 램케 UNS포츠특별보좌관과 강운태 2015광주U대회조직위원장(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흥인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서강석 호남대 총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광주방문과 프로그램 시작을 축하했다.

램케 특별보좌관은 직접 강단에 올라, 교육 기회가 적은 분쟁국가 개발도상국의 청년들을 스포츠 개발과 평화 전문가로 육성하는 YLP프로그램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강운태 조직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평화를 사랑하는 도시, 광주에서 열리는 YLP가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이 내일의 리더가 되어 평화의 희망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북한 참가자 송명렬씨는 언론의 질문에 "유엔 스포츠리더십프로그램에 참석하러 왔다. 많이 배우고 가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YLP참가자들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9월3일까지 13일 동안 탁구, 수영, 복싱, 태권도, 축구 종목 등을 체험하는 등 성평등과 평화,

장애 극복, 환경보전의 분야에서 실기와 이론을 접목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참가자들은 23일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에픽스포럼에 참여한다. 에픽스포럼은 환경과 문화, 스포츠분야의 세계적인 거장들과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광주U대회조직위와 UNS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이 공동 기획한 '국제청년멘토링'프로그램이다. 올해부터 오는 2015년까지 온·오프라인 포럼으로 운영된다.

포럼은 환경분야의 아킴 스테이너(UNEP 사무총장), 스포츠 발전 분야의 테글라 룰로프(케냐 육상선수·유엔스포츠대사), 문화분야의 이이남(미디어아티스트)작가 등 멘토 3명과 램케 보좌관, 장미란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역도) 등 모두 8명의 연사가 '스포츠 개발(Sport for Development)'을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에 참가한 국내의 대학생 500여명은 연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며, 포럼이 끝난 후에도 각 분야의 멘티가 되어 온라인(epicspeaker.org)에서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22일 광주시 광산구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유스리더십프로그램(YLP) 개막식에서 북한 측 참가자인 최신영(앞줄 왼쪽), 주혁(앞줄 오른쪽), 송명렬(뒷줄 맨 오른쪽), 리명선(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의원들이 2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성난 민심 "조명철, 국민에 사과하라"

'광주 경찰' 발언 비난 확산

광주·전남 의회 규탄 성명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한 '광주 경찰' 발언(광주일보 20일 3면)에 대한 비난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민심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여당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지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22일 조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망언을 개탄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의원직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조 의원의 망언에 대한 황우여 대표의 사과발언이 국민 무마용이 아닌 진정성을 갖는 것이라면 새누리당은 조명철 의원을 즉각 사퇴시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정치인의 퇴출을 제도화

하는 개혁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도 이날 60여명의 의원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 왜곡하고 지역감정 조장하는 조명철 의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청문회 증인에게 '광주 경찰'이라, 대한민국 경찰이냐'고 운운한 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망언"이라며 "당 대표의 '대리 유감표명'으로 어물쩍 넘기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최권일·오광록기자 cki@kwangju.co.kr

권은희 수사과장에 선물·격려 쇄도

청문회 소신 발언에 감동

경찰 수뇌부는 속내 복잡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신 발언을 했던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국 곳곳에서 격려의 메시지와 선물이 전달되고 있다.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22일까지 권과장의 사무실에는 익명의 시민들이 보낸 화분 10여개가 배달됐다. 화분에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글 띠들이 있었고, 청문회 당시 새

누리당 의원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묵묵하게 하듯 '부산시민'이라고 리본을 두른 꽃다발도 포함됐다.

권과장이 증인석에서 맘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던 모습을 의식한 듯 스탠드형 선풍기를 보낸 시민도 있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는 치킨집에서 프라이드 치킨 15마리가 배달되기도 했다. 배달원은 권과장에게 "한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앞으로 배달해 달라며 돈을 내고 갔다"고 말했다.

또 약 2시간 뒤에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등 수도권 고교 재학생 7명이 수사과장실을 찾았다. 학생들은 응원

메시지가 빼곡히 적힌 4절지와 빵 100여개를 권과장에게 전했다.

인터넷에서는 권과장의 증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올라온 '권은희 수사과장의 용기있는 증언 모음' 영상은 이미 25만번 이상 조회됐다.

반면, 경찰 지휘부는 속내가 복잡하다. 경찰 지휘부에선 권과장의 일부 발언이 청문회에 출석한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했다며 내심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증인으로서 자신이 이는 사실 관계만 말하면 될 텐데 개인적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며 "경찰 공무원이 정과정을 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이고, 워낙 관심이 쏠린 사안에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엔 권과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기란 부담스럽다는 것이 경찰 지휘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그동안 경찰 지휘부가 문제 경찰관에 대해선 법원의 최종 판결 전이라도 신속한 인사조치를 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권과장에 대한 조기 인사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권과장이 김 전 청장의 대선 개입 의혹 폭로와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으로 적지 않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경찰 지휘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한편, 경찰 지휘부는 경찰에 쏟아진 각종 의혹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청문회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설명했다는 자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2013 추석맛이 팔도 농특산물 큰잔치

Paldo's Special Offers Event for Thanksgiving Day

9.10(화) ~ 12(목) 3일간 서울시청광장 특설전시장

주최·주관 _ 한국지방신문협회 서울특별시

중합미디어그룹
 경인일보 강원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사 釜山日報社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선착순 모집배치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참가문의 : 062_220_0555

빛의만평 - 김종두

조용...
 기!
 靑島政府

이래저래 국민만 피곤하다